

휴대폰에 매화 담고...

효심 새기고

구례 화엄사 홍매화와 4사자삼층석탑

동욱 | 작가

3월 화엄사의 슈퍼스타는 부처님이 아니다. 각황전과 원통전 사이에 서 있는 홍매화 나무다. 붉은 듯 검은 듯 고운 홍매화는 “세월에 관계없이 300년을 피고 지었듯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듯이 해마다 어김없이 제시간에 피고 말았다”고 주지 스님은 표현한다.

그래서 3월 화엄사는 ‘절간’ 같지가 않다. 흔히 사용하는 불교용어 그대로 ‘야단법석’이다. 손에 든 휴대폰으로, 또 화질 좋은 카메라를 들고 저마다의 각도로 홍매화를 담으려는 사람들로 한바탕 축제가 펼쳐진다.



홍매화 꽃잎들 사이로 본 각황전



화엄사 홍매화와 지리산 자락



홍매화를 촬영하려는 사람들.
출처: 화엄사

홍매화가 피는 3월을 전후해 사진 콘테스트가 열리는 데 2021년엔 5만 명이 찾았다. 2022년엔 7만 명, 2023년엔 10만 명으로 늘더니 2024년엔 25만 5천 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이 시기 절을 찾는 순례객이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시장 분야에 전문작가 부문은 물론 휴대폰 촬영 사진 부문을 만든 게 주요한 것 같다. 홍매화 촬영하기가 순례객 사이에 놀이문화 혹은 하나의 밈처럼 유행하는 게 아닐까? 홍매화 나무가 2024년 1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왼쪽부터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에서 바라본 홍매화

-
화엄사 각황전과 석등
출처: 국가유산포털

-
각황전 앞 석등 해체 수리를 위한
고불식
출처: 화엄사



300여 년 전 각황전 중건 때 기념 식수한 화엄매, 홍매화가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 입장에서는 주객이 바뀌었다고 서운해 하지 않을까?

각황전은 조선 숙종 때인 1699년부터 약 4년 동안 공사해 완공한 2층 48칸 건물로 “그 장엄함을 비할 데 없다”고 화엄사는 자랑한다. 전각 내부에는 세 분의 부처님인 삼존불(三尊佛)과 네 분의 보살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오죽하면 이름이 각황전일까? 부처님을 깨달은 왕이란 뜻과 임금님을 일깨워 중건 했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공주로 환생한 거지노파의 흥미로운 사연까지 담고 있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물이다. 국보 67호다.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도 웅장하다. 높이 6.4m, 한국에서 가장 큰 석등으로 국보 12호다. 석등은 흔히 부처님의 빛과 진리를 상징해 ‘광명등’이라고 한다. 장엄한 각황전과 웅장한 석등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 절로 떠오른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자기 스스로 진리의 불을 밝히고 그 법에 귀의한다면 능히 배움을 구하여 이익을 얻고 한량없는 복을 거둘 것이다.”
若自然法燈, 自歸己法, 能求學得利, 獲福無量.
〈통합대장경, 중아함경. 15권 70경.〉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보 12호 석등은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균열도 발견돼 2023년 5월부터 부분 해체해 보존 처리에 들어갔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실물을



왼쪽부터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과 지리산 전경
-
4사자삼층석탑 맞은 편 석상



볼 수 없다고 한다.

각황전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아 계단을 올라가면 국보 35호인 4사자삼층석탑을 볼 수 있다. 각 모퉁이 기둥에 네 마리의 사자가 입을 벌린 채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서 있다. 네 마리 사자들이 보호하듯 에워싸고 있는 중앙엔 손을 합장한 존재가 우뚝 서 있다. 1층에는 사천왕상과 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는데 매우 정교하다. 불국사 다보탑과 쌍벽을 이루는 이형(異形)석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사자삼층석탑 맞은편엔 무릎 꿇은 채 손에는 찻잔을, 머리에는 장명등을 이고 공양을 올리는 동상이 있다. 4사자 석탑 안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맞은 편 동상은 누구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불교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다.

“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탑이 공중으로 솟아오른 형상처럼 보인다. 즉, 탑이라는 존재와 그 아래의 인물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존재이고, 단지 내면적 존재를 둘러싼 외면적 존재가 거뒤틀리는 순간, 내면적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한다. 단지 그 탑이 공중으로 솟아오른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탑 내부에 있던 부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주수완, ‘화엄사 4사자석탑 중심 존상의 도상문제’, 법보신문, 2015.7.27.〉



맞은 편 석상에서 바라본 4사자삼층석탑

탑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면서 그 안에 있던 부처님이 째~하고 실제 모습을 나타냈고, 네 마리 사자가 솟아오른 탑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맞다면 맞은편 동상은 무릎 꿇고 차를 공양하는 스님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치 『묘법연화경』의 「견보탑품」 한 구절처럼.

“묘법연화경을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 부처님의 보배 탑이 그 앞에서 솟아나고 그 탑 속에 전신이 계시어서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하고 찬탄하느니라”
若有說 法華經者 彼之寶塔이 皆 湧出其前 全身 在於塔中 讚言善哉善哉.
〈구마라집 한역, 본각선교원 편역, 『묘법연화경-그대가 본래 부처임을 설한 최고의 불경』, 비움과소통, 2011, p.329〉

하지만, 비록 정확하고 맞는 해석이라 하더라도 순례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조금은 잃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멋진 조형물인데 무언가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겠지?



4사자삼층석탑 1층에 서 있는 존재



4사자삼층석탑 야경
출처: 화엄사

화엄사 창건설화가 좋은 대답이다.

화엄사를 창건한 인물은 인도에서 온 승려 연기조사라고 한다. 연기조사는 백제 성왕 때인 544년에 백제로 건너왔는데, 이때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함께 왔다고 한다. 불법을 전파하는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에 주민들이 크게 감동했고, 그 효심을 기리기 위해 화엄사에 효대(孝臺)를 마련하고 이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4사자삼층석탑 중앙에 서 있는 존재는 연기조사의 어머니니이고, 맞은편에서 차 공양을 올리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심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4사자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는데, ‘효대’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문집에 주로 등장하고, 효가 강조된 것은 조선 유학자들의 생각이 가미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역사학자들은 이 설화에 조금은 고개를 가우뚱한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건 설화에 얹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순례객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머니께 차를 올리는 연기조사의 효성이 석탑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천년 풍상을 겪은 4사자삼층석탑.

2011년 정밀심사 때 균열과 절단, 벌어짐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됐고 결국 2016년 해체되는 비운을 맞는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래 석재를 재사용하고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구조 보강이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2021년 9월, 4사자삼층석탑은 높이 7.1m, 너비 4.2m, 무게 50톤의 그 모습 그대로 중생을 위해 본래 있던 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했다.

구례 화엄사로 가는 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전경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화엄사는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의 흔적이 어우러진 명찰이다.
화엄사로 가는 길은 늘 설렘을 안고 출발하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를 찾기 위한 힐링의 순간이기도 하다.



구례 화엄사 일원 전경



구례 화엄사로 가는 길



제2회 홍매화 2022년
휴대폰 카메라 사진 수상작
화엄사신도회장상(이득희)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화엄사로 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순천완주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순천완주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구례화엄IC를 지나 화엄사로 향하는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넓게 펼쳐진 섬진강의 푸른 물결과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길이 잘 닦인 국도 덕분에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여 도착 전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구례 화엄사 초입에 다르면, 잘 정비된 도로와 넉넉한 주차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차량에서 내려 걸음을 옮기면, 이제 본격적인 화엄사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사찰은 고즈넉하면서도 웅장하다. 오래된 고찰 특유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화엄사의 상징인 각황전,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주변 풍경은 방문객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사찰을 둘러본 후 잠시 쉬면서, 지나온 길을 떠올려 본다. 현대적인 도로 인프라 덕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엄사에 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과거에는 길이 험하고 멀어 발길이 쉽지 않았던 곳을,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화엄사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 위한 여정일 뿐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길이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길 바란다. 🇰🇷